



전자산업의 풍요로운 한 마당

—전문 국제 전자전으로 각광—

제23회 한국전자전람회(Korea Electronics Show)가 '92. 10. 15~10. 20일까지 KOEX에서 열렸다. 국내외 전자공업인들과 해외바이어, 일반관람객들이 대거 관람 명실공히 국제전자전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전자산업의 풍요로운 한마당이 되었다.

본고는 사상 최대규모, 최대실적을 올리며 대성황리에 6일간의 행사를 마무리 지으며 분석한 전자전 결과이다.

2000년대 선진전자공업국으로 진입이 다가온 것이다.

1. 개황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동안 한국 종합전시장(KOEX) 본관과 별관에서 제23회 한국전자전람회가 본회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스물세번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국내외 전자공업인들과 해외의 유력 바이어 및 관련인사들은 물론 일반관람객들까지 대거 몰려들어 명실공히 국제전문전자전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0월 15일의 개막식에는 한봉수 상공장관, 안동선 국회 상공위원장, 신국환 공진청장, 오

명 EXPO조직위원장, 홍성좌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영욱 생산기술연구원장, 김정덕 전자부품연구소장 등 귀빈과 전자업체에서는 구자학 본회 회장,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 한규완 본회 부회장, 윤봉수 남성 사장, 김정식 대덕전자 사장, 박계동 동형전선 사장, 김순중 한국마벨 사장, 양재열 대우전자 부사장, 조동식 인켈 회장, 김주채 아남산업 부회장, 김영수 한국전장 사장 등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을 거행하였다.

개막식 직후 각계의 귀빈들은 본회 구자학 회장의 이번 전자전 개요설명을 들은 후 본관 1층의 AV기기관과 3층의 전자부품 및 외국관, 그리고 별관의 산업용기기 및 공동관 등을 관람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전자전은 아시아지역의 유명 전자전이 연이어져 있어 해외 바이어 유치에서 효율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대만의 전자전이 10월 7일부터, 일본의 전자전이 13일부터 개막되었고 우리 한국전자전이 15일부터 이어져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주, EC, 아시아 등지의 바이어들이 지난 해보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용기기 부문의 전시에 있어서도 CATV, 전자의료기기, 컴퓨터주기관, 소프트웨어, 전자계측기기 등 동종업체의 공동전시관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전

시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전시경비의 절감효과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성과 분석

지난 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개최된 금년 한국전자전은 전시면적은 지난 해와 같은 28,224㎡(8,550평)으로 KOEX 본관 1층과 3층 그리고 별관에 전시되었다. 그러나 출품업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및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16개국에서 5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지난 해의 19개국 573개 업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해에 출품하였던 소련과 중국이 금년에는 출품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국내업체로는 금성, 대우, 삼성 등 종합 전자업체에서 다양한 부품업체에 이르기까지 지난 해와 동일한 335개사가 참여하였다. 또한 외국업체로는 TDK, NEC, 흙, 음론, 도시바, 켄우드, 필립스, 실리콘 제너럴, 콘택 시스템 등을 비롯한 195개 업체가 참가하여 지난 해의 238개 업체에 비하여 432개 업체가 감소하였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3개사, 미국이 22개사, 대만이 11개사, 독일이 10개사, 영국이 9개사 등으로 지난 해의 73개사가 참가한 일본업체가 금년에 43개사로 대폭 감소

表1 주요 국가별 참가업체 현황

제17회(1986년)		제18회(1987년)		제19회(1988년)		제20회(1989년)		제21회(1990년)		제22회(1991년)		제23회(1992년)	
국	명업체수	국	명업체수	국	명업체수	국	명업체수	국	명업체수	국	명업체수	국	명업체수
일	76 (38%)	일	50 (25%)	미	54 (26%)	일	65 (29%)	일	56 (27%)	일	73 (31%)	일	43 (22%)
미	49 (25%)	미	38 (19%)	일	49 (24%)	미	51 (22%)	미	18 (9%)	미	23 (10%)	미	22 (11%)
영	7 (4%)	대	8 (4%)	서	10 (5%)	대	11 (5%)	홍	12 (6%)	홍	11 (5%)	대	11 (6%)
스	6(3%)	향	6(3%)	대	8(4%)	향	11(5%)	독	11(5%)	대	10(4%)	독	10(5%)
서	5(3%)	서	4(2%)	향	7(3%)	서	9(4%)	대	7(3%)	독	8(3%)	영	9(5%)
대	5(3%)	네	3(1%)	싱	4(2%)	싱	5(2%)	싱	4(2%)	싱	5(2%)	스	7(4%)
기	50(24%)	기	92(46%)	기	100(49%)	기	76(33%)	기	103(48%)	기	108(45%)	기	93(48%)
계	198	계	201	계	203	계	228	계	211	계	238	계	195



된 것이 눈에 띄고 있다.

가. 출품 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의 출품 동향을 살펴 보면 국산제품이 320종에 7만 2,000점, 외국제품이 165종에 1만 8,000점으로 총 485종 9만점이 출품되어 지난 해에 비해 5종에 1,000점이 증가하였다.

이번 전자전에서 바이어 및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제품들을 보면 가전제품에서는 고화질과 고선명으로 집약된 와이드 화면TV, 슈퍼 VHS VTR, 초소형·대출력화된 오디오 기기 그중에서도 노래방으로 불리우는 LDP 실연장에는 연일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특히 고음질의 재생 가능한 DCC(Digital Compact Cassette) 신제품과 컴퓨터·영상·음향이 결합된 CD-I 멀티 미디어 제품, 그리고 가정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한 HA시스템 등에도 시선이 모아졌다.

산업용기기에서는 고성능, 다기능, 초소형을 지향한 노트북 PC의 팜톱형 PC 그리고 펜 입력 PC, 고해상의 슈퍼 VGA컬러모니터, 국산엔진의 고속 레이저 빔 프린터 등 컴퓨터의 주변기기에 관심이 모아졌고, 특히 실연이 가능한 CATV공동관, 전자전에서는 최초로 선보인 전자의료기기공동관 등에도 관람객이 연일 이어졌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검사 및 생산 자동화기기에다 관련업체 관계자

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전자부품에서는 손톱만한 칩 크기에 신문 512쪽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64M DRAM과 차세대 최첨단 제품인 HDTV용 핵심부품 그리고 초대형 슈퍼 Flat CPT, 전자파 장해 대책 부품과 전자재료 및 소재 등에 발길이 이어졌다.

그리고 외국업체들의 출품동향은 고화질 대형TV, 차세대 미디어-DCC(Digital Compact Cassette) CD-I 등의 가전제품과 컴퓨터 주변기기, 초정밀 계측기기, 생산자동화 시설 및 SMD 등 산업용기기와 반도체, 센서, 기초 소재부품 등 첨단 전자부품들을 출품하였다.

나. 거래상담 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을 찾아온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 품목을 보면 미주지역의 바이어들은 전 품목에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칼라TV, VCR, 카스테레오, CDP, 미니컴퍼넌트 등 A/V기기의 방송용 카메라의 CCTV, 디지털멀티메타, 무선전화기 등 산업용기기 그리고 PCB, 콘덴서, 수정진동자 등에 관심이 높았다.

유럽지역의 바이어들은 칼라TV, CDP, 카스피커, 오디오 믹서, 진공청소기 등의 가전제품과 무선전화기, FAX, 비디오 도어폰, CB트랜시버, 방송용 모니터, 위성방송수신장치, 디지털 멀티메타 등의 산업용기기 그리고 SMPS,

헤드폰, 파워 앰프, PCB, 코넥터, 릴레이, 저항기 등의 전자부품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남아지역의 바이어들은 냉장고, 카오디오, 비디오 도어폰, 유선방송시스템 등과 하이브리드 IC, SMPS, 콘덴서, 코넥터, 코일, 코인센서 등에 관심이 많았다.

최근 급격히 교역이 늘고 있는 중남미 및 중동지역의 바이어들은 오디오와 비디오 제품에 모두 관심이 높았고 특히 중남미 지역은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필요로 하는 계측기기, 통신기기, 방송용 CATV시스템 등에 중동지역은 기후와 관련된 제품 특히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HA관련 장비, FAX, 위성방송수신장치 등에 상담이 집중되었다.

이번 전자전람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참가업체의 규모 확대, 외국바이어 유치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전자산업의 앞날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다. 부대 행사(전자기술 세미나)

이번 한국전자전 기간중에 자동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동화 마인드를 고취하

여 업계의 자동화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적으로 공장자동화·정보화 추진협의회 주관하여 본회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전자기술 세미나를 10월 16일 개최하였다.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기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자동화 지원 정책 설명과 추진기법 그리고 자동화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이어졌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강 의 내 용	강 사
<문제1> ○정부의 자동화 지원 동향 및 계획	-상공부 산업진흥과 이태용 과장
<문제2> ○단계별 생산자동화 추진 기법	-금성계전(주) 신동모 박사
<문제3> ○자동화 기술선택과 성과분석을 통한 事後管理技法	-자동화 컨설턴트 안문영 박사
<문제4> ○성공사례 발표	-삼성항공 박인봉 부장

表2. 韓國電子의 年度別의 實績

년도	1969년	1974년	1975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1982년
항목	제1회	제5회	제6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기간	11. 18~ 11. 25 (8일간)	11. 26~ 12. 3 (8일간)	10. 8~ 10. 25 (8일간)	10. 18~ 10. 25 (8일간)	10. 11~ 10. 18 (8일간)	10. 25~ 10. 4 (10일간)	10. 7~ 10. 16 (10일간)	10. 14~ 10. 20 (7일간)	10. 29~ 11. 5 (8일간)
장소	국립 정보관	덕수궁 석조전	장충공원 가건물	여의도 전시장	여의도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규모(坪) (S/M)	360 (1,188)	650 (2,145)	800 (2,640)	1,600 (5,280)	2,100 (6,930)	2,850 (9,045)	2,260 (7,475)	2,755 (9,100)	3,600 (11,880)
참가업체(A)	3개국 78업체	5개국 150업체	5개국 152업체	7개국 206업체	8개국 228업체	11개국 257업체	9개국 214업체	12개국 229업체	12개국 280업체
국내업체	71	115	115	147	149	168	165	160	196
외국업체(B)	7	35	19	59	79	89	49	69	84
B/A (%)	9	23	13	29	35	35	23	30	33
출품수(點)	72종 20,600	291종 42,000	321종 42,000	360종 40,000	403종 54,000	355종 57,000	365종 59,000	390종 63,370	403종 68,100

제23회 한국전자전람회 KOREA ELECTRONICS SHOW



1983년 제14회	1984년 제15회	1985년 제16회	1986년 제17회	1987년 제18회	1988년 제19회	1989년 제20회	1990년 제21회	1991년 제22회	1992년 제23회
10. 11~ 12. 17 (7일간)	10. 10~ 10. 14 (5일간)	10. 18~ 10. 23 (6일간)	10. 8~ 10. 13 (6일간)	10. 15~ 10. 20 (6일간)	10. 21~ 10. 26 (6일간)	10. 7~ 10. 12 (6일간)	10. 17~ 10. 22 (6일간)	10. 17~ 10. 22 (6일간)	10. 15~ 10. 20 (6일간)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및별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및별관
5,400 (17,820)	4,000 (13,200)	4,600 (15,000)	4,770 (15,760)	4,770 (15,760)	4,920 (16,230)	6,284 (20,736)	6,300 (21,000)	8,550 (28,224)	8,550 (28,224)
12개국 330업체 220 109 33	14개국 380업체 210 170 45	14개국 445업체 244 201 45	15개국 460업체 262 198 43	15개국 465업체 264 201 43	18개국 475업체 272 203 43	15개국 520업체 292 228 44	19개국 525업체 314 211 40	19개국 573업체 335 238 42	16개국 530업체 335 195 37
415종 72,600	420종 72,000	430종 73,000	430종 73,000	440종 75,000	450종 77,000	460종 80,000	475종 82,000	480종 89,000	485종 90,000

表 3 年度別 電子展 出品物의 特色

回數	年度	特 色
1	1969	단일品種 展示會로서 國內 최대규모, 外國人投資업체 半導體素子 展示, 國內業體 受動素子 中心의 展示, TV 및 라디오의 중점적 展示.
2	1971	TV, 라디오 및 機構部品 중심의 展示.
3	1972	Color TV 최초 展示.
4	1973	컴퓨터 및 Color TV의 展示, 外國人업체의 대규모 출품, 國內 大企業의 신규 참여.
5	1974	電子時計 展示, 교육용 CTR展示, 電子製品輸入原資材 展示.
6	1975	Color TV, 민간휴대용무전기 등 海外需要急增品目的 中점 展示, 신모델 開發제품 (라디오, TV, 녹음기, 앰프 등)의 대량 出品, 産業用機器 출품 증대.
7	1976	컴퓨터 國內組立品, 금전등록기, CB트랜시버의 展示.
8	1977	太陽電池應用機器, 컴퓨터應用裝備, 電子式 自動交振器 및 輸出有望 開發機器의 展示.
9	1978	産業用 機器의 中점 展示, 電子醫療機器 및 電子式 악기류 展示.
10	1979	輸出可能品目 제품의 고급화, 節電型 展示.
11	1980	半導體 및 컴퓨터 國產化제품, 通信機器, 高 신뢰성 電子製品, 高 유 모델 開發品目的 展示.
12	1981	마이크로프로세서 應用 家庭用 電子機器의 展示, 오디오 및 비디오製品的 機能多樣化, 半導體 및 컴퓨터開發 심화, 製品小型化 및 高價品에 주력, 部品の 原料 및 素材開發로 國產化率 향상.
13	1982	國內業體의 Computer 및 周邊機器 展示, 通信機器 본격 출품, 家電機器에 Microprocessor 응용 활발, 電子部品の 精密·高品質化 추세, 外國業體의 설비 및 電子交換機
14	1983	16Bit Computer 등 컴퓨터 機種의 본격 출품, 國產化의 급진전, 염가 機種 출현, 光通信機器 및 DAD 등 展示, 超小型 VTR 개발 展示, 精密 部品の 輕薄短小 추세, Robot 機器의 본격 展示, 최신 자동화시설 다수 출품, 전반적으로 家電 편중으로 高度 技術의 産業用機器로 이진.
15	1984	Computer 및 주변기기의 高性能化, 응용 다양화, 高度화된 産業用機器의 신개발, VLSI級 半導體, 衛星放送 通信裝置 등 輸出 유망 New Media 機器 및 '86年, '88年 Olympic 유망製品 展示.
16	1985	多機能 컴퓨터 및 대용량의 補助記憶裝置 등의 대거 出품, 高集積度 半導體 超精密部品·素材 개발, Olympic 有望 商品 개발 展示, 輸出 유망 高機能 家電機器, Laser 電子機器, OA, FA, HA 관련機器
17	1986	世界 최초의 4mm 超小型 VTR-Camera+TV-一體型, CD 및 CDP, 벽걸이 電子렌지, HA(Home Automation) 제품의 Network 소개, 32Bit 小型 컴퓨터, 超音波 의료기기(단층촬영기), 光通信 및 計測機器, 無人倉庫管理시스템, 部品自動推入裝置 개발, 國民 普及型 PC 40만원臺 개발 (컴퓨터研究組合), 256K SPAM, 積層 Ceramic Condenser
18	1987	대용량컴퓨터, 最新 尖端通信機器 및 醫療用 機器 등 産業用 電子機器, 음성합성 VTR, DAT 등 고급 다양화된 家電製品 및 올림픽 유망상품, 1M DRAM, 복합회로 多層基板 등 輕薄短小화된 Chip型 部品素材, 最新 自動化 産業設備 및 精密計測機器, 高級 尖端部品 및 素材
19	1988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주변기기 확충, 産業用機器의 비중 확대, 磁氣記錄用 酸化鐵 粉末 開發, CDP, Car Audio 기기의 高級化, 高速 팩시밀리, 디지털 計測機器·試驗機器
20	1989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工場, 事務, 家事自動化 시스템, 高集積 半導體, 高性能 컴퓨터 등 2000年代를 주도할 尖端 電子製品, 高宣明 大形TV, 캠코더, 디지털 오디오 등 뉴미디어 製品, 전파방해 검사장비 등 超精密 計測機器
21	1990	PC의 고성능화 및 초소형화, 컴퓨터를 이용한 가사자동화시스템 및 뉴미디어 기기, 영상기기의 다기능화 (문자다중) 및 고휘상화(S-VHS VCR, 8mm캠코더), 光전자제품(광자기디스크, 포토 컷러, 수광 및 발광소자, 포토 인터레터), 혁신적 소프트웨어제품(지문인식시스템), 자동화 및 고정밀 SMC 제품 등
22	1991	PC의 초소형화 및 고기능화(노트북형 PC 및 팜톱, 펜으로 입력하는 PC), 뉴미디어의 종아 CATV, 광통신 시스템, 광케이블 LAN, 첨단기능의 영상기기(음성인식 TV, VTR), 대형화 및 고기능화 (TV 및 VTR), HA의 실용단계 제품(홈 서비스 로보트-온도, 습도, 침입, 추락방지, 경보감지), 인공지능 또는 뉴로퍼지 체용 가전제품, 16MDRAM 등 최첨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전자파 장애대책 부품, 자동계측제어장치 및 공장자동화 기기
23	1992	와이드 화면 TV(16:9), 양면 재생 LDP, DCC, CD-I, 물걸레 청소기, 김치 냉장고, 국산간이 쌍방향 CATV, 수신 메모리 기능의 카폰, 산업용 로보트, 공장자동화 시스템, 노트북 및 펜 입력 PC, 슈퍼 VGA 모니터, 한국형 POS 시스템, 64MDRAM 시작품, 12인치 TFT형 LCD, 슈퍼 Flat Display, HDTV용 DY/FBT, 자동초음파 자동용접기, 정밀 계측제어장치, 고정밀 부품 소재 및 중간재